

□ 창간특별기획- 대학주보 만족도 설문조사

재학생 69.9% '대학주보 관심'

22.9% 대학주보에 만족, 학년 높을수록 호응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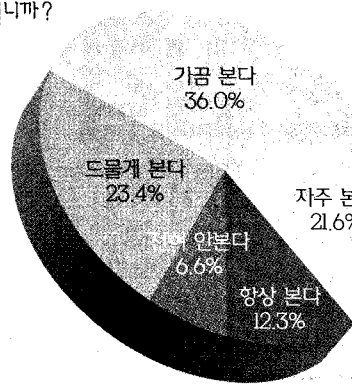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 가운데 93% 이상이 대학주보를 보고 있다.

대학주보는 창간 43주년을 맞이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양캠퍼스의 학생 634명을 대상으로 대학주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주보를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12.3%가 '항상 본다', 21.6%가 '자주 본다', 36.0%가 '가끔 본다', 23.3%가 '드물게 본다'라고 대답해 '전혀 안본다'고 대답한 6.6%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주보를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주보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1학년 210명 중 181명, 2학년 174명 중 165명, 3학년 131명 중 128명, 4학년 111명 중 110명이 대학주보를 보고 있는 것으로

• 조사기간: 1998년 5월 6-7일 • 조사대상: 우리학교 학생 (서울: 10135명, 수원: 10079명, 계: 20214명) • 표본수: 634명 • 신뢰구간: 95% • 허용오차: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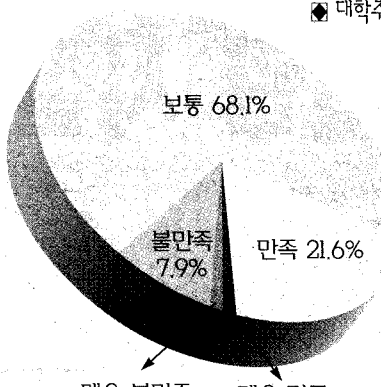
● 대학주보를 보십니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주보의 독자층과 학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대학주보의 논조와 관련,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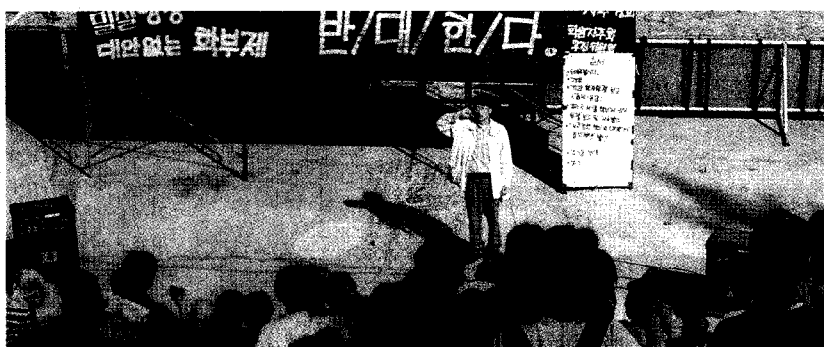
● 대학주보에 만족하십니까?



주보의 학교 정책·학생회 의견·대학주보 자체 의견 전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른 응답 결과를 보였다. 먼저 '대학주보가 학교의 정책을 잘 전달하니까?'라는 질문에 30.0%가

답한 반면, 25.1%가 '전달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대학주보가 학교 정책에 비해 학생회 의견의 전달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회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들 158명 가운데 대학주보 기사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32명으로, 이는 20.3%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반대로 학생회의 의견을 잘 전달한다고 답한 학생들 중에 대학주보 기사에 불만족한다고 한 학생은 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학생회 의견에 대한 적극적 수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학주보 기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2.6%의 학생이 만족하는 반면 8.8%의 학생들이 불만족 의사를 보였으며 대다수(67.0%)의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3면으로 이어짐〉



▲5월8일 개최된 서울캠퍼스 학원 자주화 투쟁 집회 모습

지리학과 단독 학과로 남아

국문·사학·철학과
계열모집 중단방침

지난 5월 8일 노천 극장에서 총학생회 주최 '학원 자주화 투쟁 원전 승리'를 위한 자주화 경회 한뼘 모으기'를 가지기로 하는 학원 자주화 투쟁 정리 집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자주화 운동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학부제'로 지난 5월 4일 박병수(영문) 문리대 학장으로부터 "지리학과는 단일 학과로 남고 국·사·철학과는 경우도 계열별 선발 없이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99학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은 문리대 학부제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부제 문제와 관련하여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조득진(국문 91)군은 "이와 같은 형태의 학부제 중단은 나은 발전상을 모색하는 과정을 향한 중단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학부제에 대해 3 주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연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대별 복지 요구안들에 대한 합의 사항 정리 및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측은 법대 전산실 확충과 고시방 임시실 설치, 한의대 실습 기자재 확충, 음대 연습실 및 음악 감상실 확충 공사, 총학생회의 여학생 휴게실 확충 등을 합의한 상황이다.

또 총학생회측의 정문 앞 보행자 통로 개설과 단대별 정수기 교체 요구 등이 받아들여졌으며 인권복지위원회에서 5개 체육부에 지원해 왔던 생필품을 앞으로는 학교측이 직접 지원하기로, 가로등은 자정까지 격등 점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관리 운영상의 문제와 효율성을 들어 문리대 전산실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음대의 경우도 계단 재공사시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케다씨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일본 창가대학의 창립자 이케다씨가 오는 15일 우리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조영식 학원장, 조장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크라운관에서 개최될 이번 수여식이 끝나면 기념 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 6일간 머물게 될 이케다씨 일행은 15일 있을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16일 오후 5시 이케다 씨가 GCS Club 에메랄드 상 수여식에 각각 참석한다.

또한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영식 학원장과 이케다씨의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6시 이케다씨의 창립자 추회 담회 만찬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게 되는 이케다씨는 오는 19일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여백 추구하는 간결한 제호로”



1955년 5월 12일 '신흥대학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출발을 한 대학주보는 43년의 적잖은 세월과 함께 장족의 발전과 변화를 거듭했다.

우리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955년을 계기로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대학주보'의 제호는 당시 교명에 맞게 '신흥대학보'였다. 월간, 주간 등 여러 번 초창기 '신흥대학보' 사대는 1960년 3월 25일 지령 100호를 맞아 '경희대학주보'로 잠시 바뀌었다가 같은 해 6월 30일자 106호로부터 현재의 '대학주보' 제호가 확정되었다.

세로쓰기의 제호가 지금과 같이 가로쓰기로 바뀐 것은 1984년 4월 2일 대학주보의 편집체계가 가로쓰기로 전환된 지령 800호부터이다.

대학주보의 제호는 그 당시 '신문의 일대 혁명'이라 불리던 가로쓰기의 체제에 맞춰 다시 도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부터 가로제호가 게재된 이후 1998년 5월 4일 지령 1145호까지 글자를 가로 배열로 그대로 쓴 후 바탕도안 역시 바꾸게 되었다.

이후 1998년 5월 11일 지령 1146호부터는 그 간의 대학주보 지면혁신의 일환으로 제호의 글씨체가 전면 수정되었다. 이전의 '대학주보'의 제호는 배경에 화문을 사용하고 있어 제호가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1면이 광고없는 면으로 헤드라인 상단부분이 단순하고 여백이 강조되어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공간이 협소하고 여백이 부족하여 1면다운 시 읽힘이 돋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변경된 제호는 간결미가 돋보이며 여백을 강조하는 현재의 제호로 변화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43년이란 경륜을 쌓으면서 '대학주보'의 제호는 네번의 변화를 겪었다. 항상 고민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했던 '대학주보'는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더 높은 경륜과 품격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교수측은 "한번 정치행정학부에 입학했다면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며, 타학부를 전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수전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보냈다.

현재 정치행정학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건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두 분야를 모두 알차게 이행한 학생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복수전공제를 허용했다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 등의 장애를 두는 것은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학부측은 학생들을 본래의 학부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그들에게 자율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수원 기자)



교시탑

복수전공의 자유를 위하여

"이쪽 분야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공부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마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을 것이고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통해서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그 중 복수전공제는 95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의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복수전공제 실시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6

일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정치행정학부에서 공고한 전공 관련 사항들에 대한 문제로 정치행정학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들이 반발했던 사항 중 하나는 '정치행정 이외의 다른 전공부문을 복수전공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수현(정치행정 97)군은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도 엄연히 정치행정학부 학생이며, 제도적으로 복수전공을 허용하면서 장학금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정치행정학부 학생회가 1·2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8%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시 장학금 수혜 혜택을 상실한다는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간축사

균형 잃지않는 건전한 비평지로 거듭나길

대학주보 창간 43돌을 전 경희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불꽃의 나이를 넘긴 대학주보는 경희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파수꾼이 되어 현장을 지켜왔으며, 구성원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대학 언론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굴곡의 시대를 맞아 필봉을 켜는 적도 있었으나 선두에서 서서 정론을 펼침으로써 경희가 발전하는 데 견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정원
〈총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쇄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퇴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신문은 기록성과 보존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독자의 계층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동안 대학주보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 변경과 색선화, 컬러화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해 왔으나 독자의 한정성과 대학이라는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학주보의 특성은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층적 분석 보도가 가능하며,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나름의 영역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주보는 대학의 홍보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연구활동 등 대학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에 이르러서는 독자층의 다양성과 개별성이 두드러지면서 대학주보도 시각적인 변신을 시도해야 했으며,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학주보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리라 여겨집니다.

내년이면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육사에 압축명이라는 경이로운 역사를 창조했고 늘 변화와 개혁의 정점에 서서 대학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왔던 경희의 창학 반세기는 새로운 전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시대적 특성과 함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희 재창조라는 사명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당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경희는 새 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서 분명 그 명성을 떨칠 것입니다. 대학주보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정론을 펼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하도록 하고 학교 발전에 능동적이며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줄 압니다. 더불어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균형을 이루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비평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희 역사의 파수꾼으로 대학주보가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창간 43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지면안내	
3	기획보도
창간기념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대학언론
대학언론의	지영과 대학주보
7	축사
경희가족에게	들리는 축하 메시지
8 ~ 15	창간특집
한국을	이어야 하는 4가지 테마

창간기념호 16면 발행합니다

알림

도개비 장터를 엽니다

IMF 시대 높아진 물가에 뛰 하나 실 때도 망설여 지시죠?

한백과 웃기지.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필요할 것 같아 싶지만 쓰지 않게 된 물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학주보로 기증 부탁드립니다.

필요없는 물건은 팔고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 도개비 장터에서 꼭 참여하십시오.

- 1.장터는날: 오는 13·14일
- 2.장소: 서울캠퍼스 앞길길 주변
- 3.대상: 경희인이거나 누구나
- 4.접수: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12일 까지 대학주보로 가져오거나 전화로 접수해 주세요. 서울: 961-0094~5

대/학/주/보/서